



2014 미국도서관협회

Las Vegas Annual Conference 참관기

글 | 정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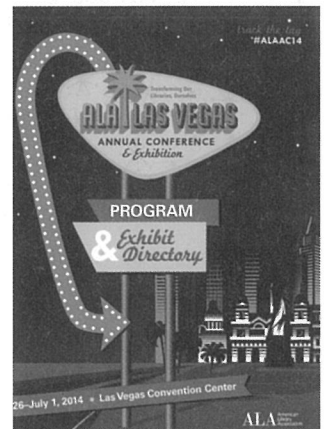
한국도서관협회 재원개발TF팀 팀장
jung@kla.kr



6월 25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13시간 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McCarran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섰을 때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은 장거리 비행과 시차에서 오는 피로감이 아닌 무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심호흡이 안정되는데 시간을 조금 할애하여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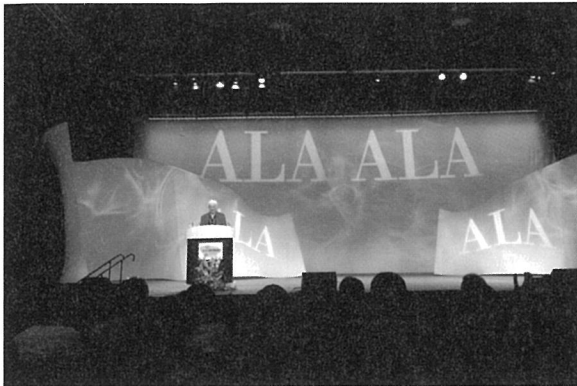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마치고, 호텔과 연결된 컨벤션센터 구경을 나섰다. 한국에서 말로만 듣던 거대한 크기의 컨벤션센터 외형과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도서관대회 홍보물들이 도서관인의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한 준비를 마친 듯이 펠릭이거나 번쩍이고 있었고, 이내 마음속에는 “사서”라는 자부심과 잔치 참여자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6월 26일 한산하던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 호텔 수속을 위한 줄이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졌다. 수속을 대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사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외모와 자세를 가진 것을 보며,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인가가 도서관 울타리에 모인 우리를 징표하고 있었다. 그중 작년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초청하여 인연이 된 2011~2012 ALA 전임회장인 라파엘 몰리와 미국 국무부 정보담당관 알카 바트나가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가벼운 인사를 커피와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ALA Conference 대회 자료집

6월 27일 아침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을 찾은 순간부터 깜짝 놀랄 광경이 벌어졌다. 어디서 모였는지, 이틀 동안 한산하고 조용하던 호텔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수많은 사서와 출판업 종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대회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분주함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ALA Conference의 개막식 참석을 위해 분주히 컨벤션센터로 향하였다. 개막식은 회장의 진행하에 협회 임원들이 소개되고, 라스베이거스 시장의 캐주얼한 인사말과 오프닝 세션 발표까지 간단명료하게 진행되었다.



▲ ALA Conference 개막식

이번 대회에는 총 258개의 프로그램이 계획되었고, 많은 양의 프로그램은 인근에 있는 10개의 다른 호텔 및 미팅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시장에는 총 960개 업체에서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중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의 대회와는 달리 아동서적을 취급하는 많은 출판업체의 홍보부스 참여였다. 또한, 미국 전역에 위

치한 도서관학과 동창회 부스가 한 섹션에 할애되어 저마다 모교의 역사와 전통, 커리큘럼 등을 홍보하고 있었다. 그 밖에 전시장 분위기나 배포되는 기념품의 종류와 방법들은 한국 대회와 유사하였다. 여기저기 기념품을 쓸어 담는 풍경을 자아내는 일부 사서들을 발견할 때마다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다.

오전 개막식과 전시장 관람을 마치고, 마이클 도울링(Michael Dowling) ALA국제교류위원장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하루 일정을 마쳤다.



▲ ALA 신임 회장 접견

6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ALA의 회장과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미팅 준비를 위해 분주한 아침을 시작하였고, 양 협회장의 미팅에서 방문선물을 전달한 후 양 국의 도서관정책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답소의 시간을 가졌다. 미팅 후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세션과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세션과 프로그램은 민간업체에서 스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인



지, 대부분의 세션과 프로그램에서 고품격의 다과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유명 작가들의 사인회 및 출판기념회와 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이 다수 있었고,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시상식 및 갈라쇼도 준비되어 있었다. 참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참여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 ALA Council 총회 참석

6월 29일 오전 10시에 ALA Council의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의 소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총 180명의 구성된 이사진이 총회를 열게 되는데, 많은 이사의 의견 조율과 회의의 진행을 위해 총회 진행석 전면에 한국의 청문회에서나 볼 수 있는 타임워치가 놓여 있었고, 넓은 회의장은 1번부터 8번까지 섹터로 구분되어 중간중간 의사 발언용 마

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총회 시작과 함께 소개 인사를 마친 후 전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벨라지오 호텔의 음악 분수를 공짜로 관람하였고, 후덥지근한 저녁 날씨임에도 음악분수가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을 뒤로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 그랜드캐니언 웨스트림

6월 30일 모처럼 도서관대회에서 자유로워진 대표단은 라스베이거스 인근에 있는 후버댐과 그랜드캐니언 웨스트림 관광에 나섰다. 폭염 속에서 렌터카의 에어컨을 최대한 높였음에도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이 야속하였고, 장시간 운전과 폭염 속에 가까스로 도착한 후버댐과 그랜드캐니언의 스펙타클한 전경과 크기가 장관이었다. 웅

장한 풍경 속에 녹아들어 관광 및 기념사진 촬영 후 발걸음을 라스베이거스로 돌렸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처음 참가하게 된 ALA Conference 참가를 통해 양 협회의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ALA Conference의 한국 대표단을 돕기 위해 뉴저지스태이트도서관(New Jersey State Library)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신 이정미 사서님께 다시 한 번 글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㉞